

금속노조 5월 총파업·총력투쟁, 7월 총파업 결정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세상을 뒤집자’ 중심 구호... 4월 19일 생존권 쟁취 1만 간부 총력투쟁

전국금속노동조합이 57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조 사수와 조직확대를 위한 12기 2년 차 사업계획, 투쟁계획, 예산 등을 확정하고, 2023년 투쟁 선봉에 나서자고 결의했다.

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 12기 2년차 사업기조로 ▲민주노조 사수, 반 윤석열 투쟁 전개 ▲조직확대와 조직강화 ▲조직혁신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내세웠다.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과 노동개악에 저지선을 치고, 노조법 개정과 민중생존권 쟁취에 나서야 한다는 정세 인식을 반영했다.

노조는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세상을 뒤집자’ 라는 중심 구호를 전면에 걸고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전개 △노조법 개정 등 대중투쟁 전면 확산, 노동기본권 쟁취 △최저임금, 실질임금 인상, 민중생존권 쟁취 △위장청산·위장폐업을 포함한 구조조정 저지, 총고용 보장 쟁취, 총선의제화 투쟁 본격화 등을 투쟁목표로 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조 사수와 반 윤석열 투쟁 전개를 위해 1월 투쟁 태세 구축, 2월 투쟁선포식, 4월 19일 1만 간부 총력투쟁, 5월 총파업·총력투쟁, 7월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나간다는 투쟁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했다.

사업계획과 투쟁계획이 대의원대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조는 올해 투쟁 조직을 위해 중앙집행위원회를 총파업투쟁본부로 전환하고, 현장순회 조직과 탄압사업장 신속 대응에 나선다. 업종별 공동투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공동투쟁 조직에도 힘쓴다. 조기 투쟁 태세 구축을 위해 교육, 선전을 강화하고, 힘 있는 투쟁을 위한 상시 실천단을 가동한다.

노조는 지난 미조직전략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3기 미조직전략사업 방향을 마련하고, 전 조직을 가동한 조직확대에 나선다. 미조직사업 필요성을 전 조직에 알리기 위한 노조 조직화 상황 인식 교육을 배치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공단 조직화 사업을 추진한다.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 확보와 법·제도 개선에 집중한다.

노조는 조직강화를 위해 운영인력 확보 등 교육연수원 안착에 노력하

고, 교육체계 정비로 교육역량 강화 나선다. 청년세대 교육 등 교육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투쟁사업장·복수노조 대응 매뉴얼을 대폭 보강한다. 지회 단위 노동안전보건활동 체계를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산업전환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노조는 조직혁신을 위해 금속노조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규모에 걸맞는 조직운영체계 마련에 노력한다. 현장토론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합원 참여를 통한 산별교섭체계 개선안 마련을 추구한다. 제도개선, 재정혁신은 현장과 소통해 단계별로 진행한다. 조직문화혁신을 목적으로 조직 내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토론문화 활성화에 나선다.

노조는 금속산업 최저임금 모든 사업장 최저임금으로 적용, ‘회사는 일체의 근로시간 및 임금, 임금체계와 관련한 사항을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나 특정 직군·직종·부서의 부분근로자대표가 아닌 조합과 합의해 실시한다’ 라는 조항 신설 등 통일요구와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시급 11,000원,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등 중앙교섭 요구안을 결정하고 산별교섭 방침을 확정했다.

“대대에서 총파업 결정하고 현장 조직하자”

단양 노조 연수원에서 57차 정기대의원대회 열어 ... 민주노조 시수·반 윤석열 투쟁, 조직확대 등 토론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월 27일 충북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에서 57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민주노조 시수, 반 윤석열 투쟁전개, 조직확대·조직강화 사업 등 12기 2년 차 사업계획과 투쟁방침을 결정한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노동개혁이라는 미명으로 노동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했다”라며 “연장근로 확대, 직무급제 도입, 주휴수당 폐지로 임금을 깎고, 노동조합을 부패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오늘 대의원대회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한판 승부를 결의한다”라고 선포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에서 국민이 억울하게 죽어도, 먹튀 외투 기업들이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아도, 고금리고물가로 민중이 고통에 신음해도 검찰 정권유지에 혈안이 된 정권이다”라면서 “언제나 민중의 부름에 앞장서서 투쟁한 금속노조, 한다면 한다는 전통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투쟁하자”라고 호소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열띤 토론을 통해 2023년 금속노조 사업과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현장에 돌아가 조합원들에게 결의를 전파하자. 총파업을 조직하자. 위원장이 최전선에서 투쟁하겠다”라고 결의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산별노조연맹 대의원대회에

다니면서 올해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산별노조연맹 간부와 조합원들은 긴말하지 않아도 7월 민주노총 총파업 조직을 결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양경수 총연맹 위원장은 “금속노조 동지들, 올해 민주노총과 함께 제대로 정권과 붙어보자”라며 “위원장으로 모든 것을 걸고 앞장서겠다. 금속노조 동지들의 투쟁의 결의와 조직화를 믿는다”라고 독려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57차 정기대의원대회를 맞아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하고 실천한 지회와 조합원에게 상을 주고 경의를 표했다.

노조는 조직강화상을 경기도부계양전기지회, 경남지부 SNT중공업지회 신천섭 조합원, 경주지부 플라스틱옴니업지회, 대구지부 대동금속지회, 부산양산지부 동부산지회에 수여했다.

노조 단결투쟁상을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순천단조비정규직지회, 울산지부 현대제철울산지회, 충남지부 현



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받았다.

노조는 연대투쟁상을 대전충북지부 코스모링크지회, 충남지부 케이비오토텍지회에 주었다.

최윤미 경기도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장과 대전충북지부 다우케미칼실리콘지회, 부산양산지부 SH지회가 투쟁격려상을 받았다.

노조는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운동을 함께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사전대회에서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경기도지부 한국와이퍼분회가 외투자본 먹튀와 불법과전 철폐를 위해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